

추석귀성 피할 수 없다면...방역수칙 꼭 지켜주세요

모두가 이번 추석만은 피하고자 하지만, 광주 북구에 사는 서영준(48)씨 가족(3명)은 그냥 고향 부모님 댁을 찾기로 했다.

부모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서씨는 "명절에 부모님의 얼굴을 뵈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귀성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씨처럼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고향 방문 계획을 세우는 지역민들이 있다. 추석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심분 공감하지만 추석만큼은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선 때문이다. 안 그래도 감염 위험 탓에 어버이날을 포함해 거의 8개월 동안 한차례도 방문하

휴게소 가급적 들리지 말고
식사도 휴식도 차량서 해결

부모·친지 포옹·악수 피하고
식사때 개인 접시 이용해야

마스크 쓰고 친척집 방문 자제

지 못했다니 그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향 집과 부모가 그리운 이가 어디 서 씨 뿐이겠는가. 추석이 다가올수록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아이디어를 묻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귀성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고 현명한지 네티즌 간의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

계시된 글들은 살펴보면 '고향가는 데 휴게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추석음식 여럿이 모여 먹는데, 감염위험은 없을까요?' 등이다.

방역전문가들은 이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역이지만, 그래도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면 평소보다 더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석연휴기간 귀성·귀경길은 물론 고향집에서까지 연휴동안 모든 공간에서 방역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귀성길과 귀경길에는 가급적 차량 안에서 식사와 휴식 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부득이 휴게소를 들릴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채 화장실만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음식섭취를 자제하고, 손소독제 등으로 손잡이나 의자 등을 만진 뒤에는 수시로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귀성길에 방역에 긴장을 했다가도 고향 집에 도착하면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다며, 고향 도착이후의 방역에 더

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부모와 친지 등 가족을 만나 반가울지라도 포옹이나 악수보다는 목레나 최소한의 접촉인 주먹인사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가족들이 많이 모인 점을 고려해 환기는 시간날 때마다 해야 한다. 또 리모컨·방문 손잡이·변기 물내림 버튼 등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중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대한 직계가족만 단출하게 식사를 하고, 반드시 음식을 덜어 먹을 개인 접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추석 당일 성묘에 나설 경우에도 마스

크 착용은 필수이다.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인원로 동선을 겹치지 않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성촌의 경우에는 연휴기간 친척집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방역의 최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명절을 맞아 다양한 지역에 퍼져있다 고향집에 찾아온 가족들이 모였다가 바이러스가 퍼지면 걸잡을 수 없다"면서 "다소 불편해도 마스크를 끼고 접촉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발전계획 비전선포식

24일 광주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문인 광주북구청장과 표범식 북구의회의장, 북구의원, 구민상 수상자, 사·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북구발전계획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남구 무등시장 120면 주차빌딩 신축

32억원 들여 2023년 완공

광주 남구는 전통시장의 불편 사항으로 꼽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등시장에 차량 1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신축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2023년 6월까지 무등시장 뒤편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주차빌딩을 짓는다.

백운광장 인근에 있는 무등시장은 백운

고가철거와 주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유입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남구는 선제적으로 주차장 신축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내년 1월부터 주차빌딩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무등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더욱더 활기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거버넌스 회의

광주시 북구는 최근 거버넌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이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결과를 공유하고 광역생활자원화수센터 건립, 타 자치구 시설공단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구는 지난해 학계·법조계·환경·시민단체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 논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후 올해 7월 공개경쟁입찰 결과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 사업비와 비교해 6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육청 소속기관·학교 31곳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입사지원서 출생지 기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

광주지역 상당수 교육기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의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적발기관이 3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항으로는 입사지원서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 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 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응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분청,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 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채용공고 때 제출서류는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관행적인 요구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평생교육관

중학학력 교육 비대면 수업

금호평생교육관이 정규 중학교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만 18세 이상 성인 38명에게 학력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4일 금호평생교육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과정'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사들은 비대면 수업환경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 자료를 재구성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힐링 필사' 프로그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코로나19'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기간 동안 시민들의 독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힐링 필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힐링 필사는 참여자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배부한 필사책에 일정 기간(10~11월) 동안 필사해 제출하면 12월에 제출된 필사책을 전시한 후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독서행사이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정한 '힐링 필

사' 운영 도서는 ▲필사의 힘:헤르만 헤세처럼, 데미안 따라쓰기 ▲필사의 힘:생텍쥐페리처럼, 어린왕자 따라쓰기 ▲명시를 쓰다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고전필사: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옛 사람의 지혜 71 ▲명언필사 등 6권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선착순 50명이 마감될 때까지 가능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